

세계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발표 이후 30년 만에 산출 기준을 바꾼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엔비디아 등 상위 반도체 기업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여기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요 투자자의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14일 자본시장 업계와 미국 나스닥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필라델피아 지수의 산출 방법이 변경된다. 1993년 지수 발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기준 상위 30개 종목을 묶은 것으로, 엔비디아부터 AMD·브로드컴·TSMC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총 상위 5개 종목 가중치는 8%로, 나머지 기업은 최대 4%로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톱2 기업의 가중치가 늘어난다. 1위 기업은

## AI반도체 ‘엔비디아 괴력’ 30년된 반도체 대표지수 ‘필라델피아’도 흔들었다



12%, 2위 기업은 10%로 비중을 늘렸다. 3위 기업은 기존 8%와 같지만 그 이하 기업은 4% 제한을 유지한다. 현재 1위인 엔비디아 비중은 8%에서 12%로 1.5배 늘어나고, 2위인 브로드컴도 8%에서 10%로 비중이 커진다.

나스닥이 수십 년 만에 기준을 바꾼 데에는 최근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운용 규모가 2조3814억원에 달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상장지수펀드(ETF)’는 필라델피아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반도체 ETF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오민석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 본부장은 “기존 방법론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를 나스닥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